

지역 소식통

정읍시, '제7회 책 읽기 마라톤 대회' 운영

정읍시가 시민들의 책 읽는 즐거움을 공유하고 건강한 독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8개월간 책 읽기 마라톤 대회를 운영한다.

책 읽기 마라톤은 책 읽기와 마라톤을 접목해 미리 선택한 독서코스를 완주하는 온라인 책 읽기 경주다. 참가자가 읽은 책 1쪽을 2m로 환산해 적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읍시립도서관 회원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가족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독서 경주 코스에는 7세 이하 유아 코스, 걸기 코스(5km), 단축 코스(10km), 하프 코스(21km), 풀코스(42.196km) 등이다.

해당 도서는 시립도서관 대출 도서뿐만 아니라 평소 직접 읽은 도서도 가능하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청결환경 조성 방치폐기물 대대적 정비

고창군이 불법투기로 도로 주변, 하천, 야산 등에 방치된 폐기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이번 일제정비는 2023년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사업비 1억2000만원을 투입해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약220톤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한다. 읍·면별로 방치폐기물 현황을 일제 조사하고, 2월부턴 방치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전문처리업체 등을 통해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집단투기 장소들의 상시 점검을 강화해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강력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고창군청 강필구 환경위생과장은 "방치된 폐기물의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고창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앞장'

정읍시, 출산 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등 올해도 추진

정읍시가 여성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정책 등 전문 여성농업인 육성책과 복지향상을 노력하고 있다.

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농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생카드, 농작업 편의장비, 출산 여성농가 도우미 등 다양한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총사업비 8억원을 투입해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여성 농업인에게 건강,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반복적인 농작업과 가사노동으로부터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생생카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업인으로 만 20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이다.

지난해까지는 가구당 농지 소유 면적(세대원 합산)이 5만㎡ 미만 농가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가구당 농지 소유 면적 제한을 없애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신청은 2월 28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또한 여성농업인이 더욱 편하게 농사지를 수 있도록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여성

농업인의 농업 경영 능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다용도 작업대와 충전 분무기 충전 운반차, 고추 수확차, 충전식 예초기 등 농작업 편의장비 135대를 지원하며, 총 6,750만 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여성농업인이며, 1대당 50만원(보조 40만원, 자부담 1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신청은 2월 20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출산으로 인한 농가의 영농 중단 방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 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정읍=김대환기자

실내 마스크 권고 전환 "이것만큼은 알아 두세요"

정읍시, "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 등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

1월 30일 0시를 기해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됐다.

정읍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1단계 부분 해제되지만, 일부 실내 공간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만큼 착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감염 취약 시설 중 입소시설, 대중교통수단 실내,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감염 취약 시설 중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 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이나 상주 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대중교통수단인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등의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다만 탑승 중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차역과 공항, 승하차장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다.

시는 코로나19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취약 시설 중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 증진시설, 장애인

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특히 밀폐·밀집·밀접 등 3밀 환경에 있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합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를 예로 들었다.

또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80세 이상 연령층과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도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화수 시장은 "자신과 가족, 이웃의 건강과 사회를 위해 긴 시간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하지만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과 필요성도 여전히 만큼, 필요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에 이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곰소왕젓갈, 2023 전국해양수산 발효식품대전 최우수상 수상

부안군 곰소왕젓갈 이상에 대표가 2023년 전국 해양수산발효식품대전에서 최우수상(단체부)을 수상했다.

지난 28일 강원도 삼척에서 전국 최초로 열린 이번 대회는 농식품부 산하 사관법인인 대한민국치유식품진흥회와 삼수



령전통주연구소가 주최하고 한국장류발효인협회 주관하여 해양수산식품부, 해양수산발효부, 전동주부 3개부문으로 전국 총 75팀 100여명이 참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부안 대표 특산품인 뽕과 젓갈을 이용한 뽕양아리굴젓, 뽕양조기젓갈 등으로 해양수산발효부문으로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행사 참여를 계기로 해양수산 먹거리를 재조명하고 발굴하여 향후 수산발효식품 발전에 도화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안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젓갈 발효식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부안군민의 차별성 있는 전통식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상품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기자



부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관내 청소년 가족 30명이 참석, 가족관계 향상 지원 프로그램 "우리 가족 겨울 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우리 가족 겨울 캠프' 운영

부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족관계 향상 지원 프로그램

부안군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 동안 관내 청소년 가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안전망 가족관계 향상 지원 프로그램 "우리 가족 겨울 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안전망 가족관계 향상지원 프로그램은 부모교육 및 가족간 상호 교류 활동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고 가족애를 함양하여 가족 결속력 및 청소년의 안정적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 "우리 가족 겨울 캠프"는 가족 관계 개선 부모 교육, 얼음 분수 관람, 필트랙, 눈썰매, 군발 굽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가족간 소통의 기회 제공 및 행복한 가족 여가 문화를 조성하고자 했다.

캠프에 참가한 청소년은 "캠프 활동을 통해 재미와 감동, 힐링과 소통이

공존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며 몸과 마음이 움직여지기 쉬운 겨울철에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부안군 교육청소년과 김화순 과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소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 문화 확산, 청소년 가족별 사회 참여 확산, 청소년 부모교육 등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했다.

부안군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가능)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청소년뿐 아니라 그의 환경인 가족의 건강한 보호 속에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향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장학재단, 서울·전주장학숙 입학생 모집

(재)고창군장학재단(이사장 심덕섭)은 고창군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서울장학숙 28명, 전주장학숙 50명의 입학생을 모집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신청·접수는 2월6일까지이며, 2월1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며 올해부터는 재학생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1인 1실로 운영된다.

선발대상은 서울장학숙(수도권), 전주장학숙(전북권) 소재 대학교(전문대학) 신입생 또는 재학생으로 본인이나 부모가 2022년 1월 1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선발기준은 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

시험 성적, 재학생은 직전 학기 학업성과 함께

생활정도 등 고창장학숙 운영 규정 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며 제출서류를 구비해 고창군청 인재양성과 평생교육팀에 방문 접수하거나 고창군청 홈페이지(http://www.gochang.go.kr 분야별정보→교육·체육→장학재단→장학숙)에서 할 수 있다.

입사보증금 10만원(퇴사시 반환)과 매월 부담금은 서울 22만원(1인1실)/20만원(1인1실)을 납부한다. 신청자격과 선발기준에 따라 속실이 배정되며, 장학, 의자, 침대, 휴게실 등 장학숙 내 설치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Advertisement for '착한신고' (Good Reporting) campaign. It features a woman covering her face in distress, with hands pointing towards her. The text promotes reporting child abuse to the number 112. Key points include: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You who reports are a hero),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You must report if you know or suspect child abuse, and a fine of up to 500 million won will be imposed if you do not report), and a list of signs of child abuse such as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Signs of child abuse) including '어른과의 접촉회피' (Avoidance of contact with adults) and '공포를 나타냄' (Showing fear).